

「萬歲前」의 小說美學

丘 仁 煥

(국어교육과)

I. 序

韓國의 많은 作家 중에서 廉想涉과 같이 文學意識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創作生活을 계속한 작가도 그리 많지 않다.

사실 文學意識이 文明批評에까지 擴大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시한 文學意識을 작품으로 形象化시키지 못하고 空念佛이 되거나 退化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春園이 「나의 共和國」, 「子女中心論」, 「民族改造論」 등 志士의인 文明批評에까지 그의 文學意識을 확대한 경우이고, 후자는 金東仁이 反春園論으로 文學의 獨自性和 純粹性を 주장하면서도 野談에까지 장르를 확대하여 小說의 文學性を 흐리게 한 경우와 카프작가들이 과잉된 文學意識에 비해 창작적 수확은 보잘 것 없었을 뿐만 아니라 風俗性으로 退化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廉想涉은 첫 作品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에서 마지막 作品인 「疑妻症」(1961)에 이르는 40년 동안에 長篇 28篇, 短篇 150篇을 발표한 창작생활에서 文學의식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창작을 계속한다. 自然主義와 個性文學論을 펼친 「個性和 藝術」(1922), 文學은 아무것에도 예속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는 「階級文學是非論」(1925), 文學과 生活의 相關性を 말한 「文藝와 生活」(1927), 小說의 本質을 追求한 「現代人과 文學」(1931) 등의 批評을 발표하면서도 小說의 風俗性を 觀察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어느 作家보다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人生의 監督者이거나 設計者이기를 피하고, 外的 狀況의 變化에 별다른 觀心을 보이지 않고 庶民의 生活과 世情을 平面的으로 그리는 勞働者로서 부지런히 창작을 해 온다. 그러므로, 「三代」나 「二心」과 같이 그런대로 歷史意識이 投影된 作品이 없지 않으나, 廉想涉은 植民地時代의 民族的 受難이나 8·15解放 이후의 社會性和 時代性を 중요시한 「朝鮮文學 再建에 對한 提議」(1948), 「나의 小說과 文學觀」(1948), 階級文學과 대립되는 民族文學을 옹호한 「民族文學樹立의 理念」(1950), 自然主義에 대한 見解를 분명히 한 「나와 自然主義」(1955), 사실주의로 一貫한 것을 회고한 「나의 創作餘談」(1961) 등 수많은 批評으로 文學意識을 표명하고 作品에 대한 변호와 批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투철한 文學意識을 가진 廉想涉은 사실주의적 技法과 서민생활과 時代의 理念的 소용돌이, 6·25의 民族悲劇의 격동 등 外的 狀況의 變化에 따른 새로운 人生의 解釋이나,

그狀況을 초극하려는 삶의 指標를 모색하는 처절한 對決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종 일관하여 庶民의 生活에 얽힌 人情世界의 哀歡을 사실적으로 形象化하여 人間生活을 평면적으로 再現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廉想涉의 小說은 그 作品의 올바른 접근으로 共時的 意味를 밝히고, 그것을 繼時的 研究로 확대할 때 비로소 그 文學的 意味가 定立되게 될 것이다. 물론 그의 文學意識과 작품과의 相關性을 밝히면서 廉想涉小說의 總體像이 수립될 때 近代小說史에서의 廉想涉의 座標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廉想涉의 作家像이나 小說像은 考究되면서도 그의 作品論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作品論이 先行되지 않고 廉想涉小說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三代」나 「두 破産」, 「臨終」, 「一代의 遺業」, 「萬歲前」 등을 中心으로 廉想涉小說을 論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이 많지 않음을 보면, 우리 文學研究가 뿌리 없는 데서 싹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여기에 廉想涉小說의 意味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作品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萬歲前」(1923)은 「墓地」로 발표되었다가 出版될 때 그 제목이 「萬歲前」으로 바뀐 廉想涉의 최초의 長篇이다. 또한 「萬歲前」은 「標本室의 靑개구리」 등과 같이 초기의 小說로 廉想涉小說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萬歲前」의 研究는 그 技法的인 分析과 內容世界의 접근으로 「萬歲前」의 文學性을 점검한 丘昌煥의 「廉想涉의 萬歲前 小考」가 있을 뿐 廉想涉論이나 그 小說論을 전개하면서 단평적으로 言及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 그 論評은 대체로 두 方向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다음과 같은 當代 社會의 觀察이요, 묘사라는 견해다.

時代와 社會를 꿰뚫는 作家의 批判이 하나의 무덤으로 縮約된 社會를 성실하게 描破했다.

—申東旭, 「廉想涉의 「三代」

自我批判과 民族의 悲運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社會의 眞相을 銳利하게 觀察하고 分析함.

—金鍾均, 廉想涉研究

當대의 거리, 當대의 風景을 보여준다.

—金柱演, 「現實主義의 한 昇華」

1人稱 觀察者 視點으로 3·1운동 만세전의 암담한 殖民地 現實을 觀察함.

—拙稿, 「廉想涉小說攷」

또 하나는 精神의 變모과정을 돌보려는 경향이 있다.

殖民地時代에 의해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급격한 속도로 교차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인이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변화의 一面을 보여줌.

—金治洙, 「自然主義再考, 廉想涉」

作家의 寫實的 描寫法이 크게 向上되었음은 물론, 事物을 보고 思考하는 眼目과 筆力 및 人間的 成熟度 또한 급격히 上昇되었다는 사실로 쉬이 感知할 수 있다.

—蔡燾, 1920代 韓國作家硏家

그러나, 이 견해들⁽¹⁾은 어디까지나 短評에 지나지 않고, 本格的인 연구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여기에 「萬歲前」의 內的 要件에 의한 접근으로 構造를 분석하고, 내용세계를 투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社會意識의인 照明에 의해 그 文學性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II. 小說의 風俗性과 歷史性

(1) 小說과 現實

小說은 現實을 反映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다양하게 形象化한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近代小說은 물론이요, 內的 獨白이나 自由聯想法 등의 心理主義小說이 狀況에 의해 實存的 삶의 意味를 追求하는 實存主義小說, 일체의 小說美學을 否定하는 누보로망 등 現代小說은 실로 다양한 小說世界를 形象化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小說은 人生의 本質을 추구하고 그 意味를 정립하려는 人間存在의 解明과 그러한 人間이 지향하는 삶의 指標의 제시로 集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앞의 것은 모라비아의 「倦怠」나 李範宣의 「誤發彈」과 같이 人間의 本質的인 추구요, 뒤의 것은 까뮈의 「페스트」나 金東里的 「乙火」와 같이 주어진 狀況을 克服하고 人間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유토피아 追求의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전자는 歷史와 社會와의 관련정보 다 삶의 現場에서의 人間의 本質의 追求로 나타나고, 후자는 역사와 社會의 力動 속에서의 人間의 主體的 作用과 個體에서의 解放을 지향하게 된다. 여기에 小說의 人間探究와 歷史意識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小說은 사실의 제시나 說話的 事件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作家의 인생과 역사적 현실의 透視에 의한 想像的 體驗을 小說技法으로 文體化하는데서 가능해진다. 말하자면, 사상과 생활감정으로 파악된 현실의 美的 構造에 의한 形象化로 藝術로서의 小說이 창조되어진다.

現實이 바로 小說의 作中現實은 아니다. 小說이 인생의 표현이요 社會의 反映이라고 하지만, 인생이나 社會의 現實이 그대로 소설의 세계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실제의 人物

(1) 「萬歲前」을 批評한 것 중 다음의 것들이 注目된다.

丘昌煥: 「廉想涉의 萬歲前 小考」 韓國言語文學 創刊號 1963

申東旭: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1972) pp. 88~91

金鍾均: 廉想涉研究 (高大出版部, 1974) pp. 97~100

金柱演: 「現實主義의 한 昇華」 文學思想 (6) 1973年 3月號

金治洙: 韓國小說의 空間 (悅話堂, 1976) p. 122

蔡 堦: 1920年代 韓國作家研究 (一志社, 1976) p. 78

拙 著: 韓國近代小說研究 (三英社, 1977) p. 223

을 모델로 하고 社會를 背景으로 했다고 해도 소설의 現實은 작가의 想像에 의해 독창적으로 再構造된 현실이다. 「三代」나 「常綠樹」, 「젊은이의 獅子」 또는 戰後小說 등이 당대의 社會的 關聯성이 짙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歷史나 風俗史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인생이나 사회적 현실에 비슷하면서도 소설의 현실은 소설 자체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 創造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自然의 模倣說을 부정하여 소설 자체의 리얼리티를 창조해야 한다고 소설의 자유를 말한 것도 소설이 現實의 연속에서 解放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現實은 존 록웰(J. Rockwell)의

사회적 사실은 아주 널리 불가능한 소설이라도 소설에 나타나게 된다. 소설에서 일어질 수 있는 사실에는 두 가지 類型이 있다. 즉 하나는 소설이 創作되어졌던 社會에 어떤 社會制度나 慣習이 존재하고 또는 존재하고 있었느냐에 관한 정보인데, 그것은 科學技術, 法律, 宗教의 금지, 또 다른 여과 상태다. 다른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소설의 人物의 태도나 행동에서 抽出할 수 있는 社會에 있어서의 價値와 規範, 期待에 대한 情報다.⁽²⁾

라는 見解에서 볼 수 있듯이(J. Rockwell: *Fact in fiction* 1974, pp. 117~134) 當代的인 風俗性과 그것의 變化가 指向하려는 歷史性的의 두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소설의 空間性과 時間性

소설이 아무리 技法에 수용된 想像的 體驗의 세계라고 해도 現實과의 關聯을 절연할 수는 없다. 그것은 幻想의 세계는 물론이요, 새로운 秩序에 의한 리얼리티의 세계라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實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설에 나타난 現實은 두 類型으로 구별되어진다. 그 하나는 當代的 風俗性을 나타내는, 있었던 現實이요, 또 하나는 새로운 變化에 의한 指向性을 보여주는, 있어야 하는 現實이다. 앞의 것은 정지적 의미에 그쳐 당대의 社會相을 反映하여 소설의 空間的 의미로 歸結되고, 뒤의 것은 未來 指向的인 變革으로 歷史意識이 발현되는 소설의 時間的 의미로 集約되어진다.

소설의 이러한 空間性과 時間性을 조·록크웰이 소설이 社會 現實의 表現뿐만이 아니고 社會統制의 필요한 기본적 部分이며 逆說的으로 말하면, 社會變化의 重要요소이기도 하다는 前提를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 것도 소설의 時空間性을 말한 것이다.

소설은 幻想의 社會化에서부터 法과 宗教와 같은 公的 基準의 表現, 政治家들의 척도, 일반적으로는 大衆의 生活의 設計와 상징, 특히 規範과 價値, 그리고 個人과 個人 相互間의 行動 등 쉽게 규정될 수 없는 기초분야 등 많은 범위를 보여 준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社會에 대해 두 가지 類型의 情報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科學技術

(2) R.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Y.: 1974) p. 117

과 法律, 慣習, 社會構造와 制度의 樣相의 事實의 묘사요, 들쭉는 가치나 상태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쉽게 얻어질 수 없는 情報이다. 그리고, 후자는 거대한 變化가 社會의 기초제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中世紀 文學의 主題와 같이 그 변화가 表面化되었을 때 잘 나타난다. 그 변화는 이를테면, 가정의 구조나 조직이나 경제적 生活에 있어서 文學에서 表現되어지는 價値의 갈등을 일으키는 변화를 말한다. (Ibid p. 4)

여기서 小說의 空間性은 社會性을 表現하는 風俗性으로 귀결되고, 小說의 時間性은 時代性을 표현하는 歷史意識과 관련된다.

小說의 空間性은 리얼리즘을 技法으로 風俗性을 나타내어 정지된 當代 社會를 反映한다. 프로벨의 「보바리夫人」은 19世紀 중엽의 庶民社會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모파상의 「미계 덩어리」나 「女子의 一生」 등 많은 作品에는 當代의 모습이 浮刻되어 있음을 본다. 트르케네프는 「父子」에서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帝政러시아 말엽의 社會相을, 그리고 체호프는 「정조」 등 여러 作品을 통하여 무너져 가는 러시아의 剝陽族을 잘 묘사했다. 토마스·하디는 운명의지에 기울어져 가는 웨섹스 地方의 社會相을, 드라이저는 「아메리카의 悲劇」에서 物質文明이 가져오는 人間의 타락과 비극적인 미국의 社會現實을 그리고 있다.

특히 빨작은 「人間喜劇」이라는 大河小說을 통하여 19세기 전기의 프랑스 上流社會의 모습을 年代記적으로 묘사하고, 줄라는 「루공마카르 叢書」라는 20卷에 달하는 大河小說을 써서 프랑스 第二帝政時代의 社會를 背景으로 社會現實을 낱낱이 파헤치며 大家族史를 그리고 있다.

한국 문학에서 「春香傳」에는 暴政에 시달리는 朝鮮後期 社會가 여실히 그려지고, 廉想涉의 「三代」에는 植民地下에서 살아가는 封建的·開化的·植民地的인 年代가 살아가는 社會相이 잘 그려져 있다. 또한 朴泰遠의 「川邊風景」에는 淸계천을 무대로 生活하는 당시의 風俗을 피카레스크적으로 그리고, 蔡萬植의 「落照」에는 解放된 狀況에서 살아가는 社會相과 人間現實을 잘 보여 주고 있다. 70年代의 小說도 애로와 商業性으로 저락하면서도 當代 社會의 風俗性의 反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小說의 時間性은 강렬한 歷史意識에 의한 社會를 變化시키고 유토피아 指向을 나타내게 된다. 톨스토이의 「復活」에는 인도주의에 의한 人生구제의 方向을 제시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罪와 罰」에는 人間의 罪意識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세계를 指向하려는 것이 보이며, 헤밍웨이의 「바다와 老人」에는 위대한 자연과 대결하는 人間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빅톨 유고의 「레 미제라블」에는 당시 社會가 길게 나타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人間救濟의 方向을 제시했으며, 까뮈의 「페스트」는 極限狀況에 처해 있는 오랑시를 중심으로 류 醫師에 의한 人間救濟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여 變革시키는 文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李光洙의 「無情」이나 「흙」에는 當代 社會의 여러 樣相을 보이면서 金東仁이 비난하리만치 社會改造에 의한 새로운 民族의 方向을 제시되어 있으며, 廉想涉은 「二心」에서 植民地

狀況에서 서식하는 민족의 삶의 指向性을 보여주며, 李箕永의 「故郷」에는 당대 社會의 風俗性이 짙게 나타나면서도 프로레타리아 운동에 의한 社會의 변동을 교시하고 있다. 蔡萬植의 「少年은 자란다」 같은 作品도 강력한 歷史意識에 의한 삶의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小説은 社會를 風俗圖의으로 보여주면서 歷史意識에 의한 미래 指向性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풍속도와 같은 객관적 묘사로 文學의 現場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있었던 現實의 反映이요, 후자는 諷刺, 폭로, 批判의 현실묘사로 文學의 指向性을 나타내어 있어야 하는 現實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萬歲前」에서는 있었던 社會를 反映하여 植民地下에서의 空間的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

Ⅲ. 萬歲前的 共時的 意味

「萬歲前」은 廉想涉이 첫 作品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를 발표한 2年 뒤에 발표한 첫 長篇이다. 「墓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리만치 남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萬歲前的 植民地下의 韓國社會를 객관적인 묘사로 浮刻시킨 作品이다. 主權을 박탈당한 植民地社會의 공동묘지와 같은 칩퐁한 霧圍氣와 수탈과 감시 속의 처참한 狀況을 觀察者의 위치에서 表現한 「萬歲前」은 廉想涉小説에서 個人意識이 社會意識으로 擴張되어감을 보여주는 作品이다.

우선 「萬歲前」의 構造와 그 作品이 浮刻시킨 意味를 진단하여 「萬歲前」이 지닌 共時的 意味를 抽出해 보자.

(1) 作品構造

「萬歲前」은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기 전 겨울, 아내가 위독하다는 消息을 듣고 京成(서울)까지 오는 과정과 아내가 죽어 東京으로 돌아가려는 사이에 술에 逃避하기도 하면서 압담한 朝鮮社會를 觀察하고 批判한 風俗圖의인 小説이다.

1人稱觀察者視點으로 單純構成으로 짜여진 「萬歲前」은 女人과 술을 모티브로 日警의 감시, 처참한 現實을 交叉的으로 삼입하며 사건이 進行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진보를 받은 東京 대학의 (李寅華), 단골 술집에 가서 좋아하는 靜子를 만나 선물을 주고, 神戶 A카페의 낮익은 계집의 毒팔정사, 작년 여름에 마음에 끌렸던 乙羅와의 만남, 下關에서의 감시, 釜山에서 金泉, 서울에서 보는 植民地에서의 궁핍과 압담한 社會現實을 觀察하여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짓궂게 尾行하는 官憲의 눈초리, 곳곳에서 당하는 審問, 어디서나 당하는 民族的 모욕, 의기가 양양한 日人에 비해 너무나 荒涼한 조선사회, 아직도 封建的 夢昧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共同墓地에 묻힌 것 같은 植民地 社會, 부유한 집에선 아침부터 술이 아니면 첩이나 얻어대는 망국적 氣風, 大家族制度의 不合理, 迷信에 젖어 있는 舊習 등을 관찰하여 ‘나’로 하여금 悲憤慷慨케 하며, 특히 民族的

不幸을 꽃같은 나이에 가엾게 죽어간 ‘아내’로 상징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靜子와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靜子の 편지와 答伸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首尾雙關의 구조다.

그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며, 그것의 의미를 또 抽出해 볼 수 있다.

- 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음 (事件의 發端)
- ② 靜子를 만나고 헤어짐.
 - 靜子의 편지 (첫간) (個人意識의 서술)
- ③ 女人과의 폭팔情事, 乙羅와의 만남 (近代意識과 道德意識의 서술)
- ④ 下關에서 배탈 때 형사의 審問
 - 짐을 수색 당하여 서류 몽치 빼앗김 (植民地狀況)
 - 목욕탕에서 조선의 노동자를 쿠리로 매매하는 일본의 사기 상인의 악랄함을 暴露 (農民의 悲慘相)
 - 知性人이 아는 農村의 비참상이 皮相의임을 痛感함.
- ⑤ 船內에서 우월감이 個人과의 關係를 벗어나서 集團의 背景에서 오면 적개심으로 변한다는 思索 (抵抗精神)
 - 釜山에 닿아 下船때 서달림
- ⑥ 釜山의 거리, 큰 집은 日人의 집
 - 日人을 아버지로 둔 女給과의 대화 (日帝의 수탈과 植民地相 폭로)
- ⑦ 金泉도착……왜놈이 차지
 - 형님 새씨 얻음 (舊習에 대한 批判意識)
 - 아버지는 산소 자리에 말 머리를 씌
 - 일경의 감시
- ⑧ 서울行 汽車 내에서의 비분
 - 商人들의 참상
 - 植民地下에서의 궁핍상
 - 일경의 검문, 상인의 심문
 - 이것이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뒤져라.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民族意識의 자각)
- ⑨ 서울 도착과 아내의 병
 - 아내의 병(乳腫)……병원과 한약방 (無知에 대한 批判)
 - 아버지와 김의관의 결탁
 - 종로서의 순경 尾行
- ⑩ 병화의 집에 감 (애정의 갈등)
 - 乙羅와의 대면
 - 김의관 일본말 흉내 (主體性的 결여)
- ⑪ 아내의 죽음
 - 女人들의 숙명 (人生無常)
 - 을라의 조문
- ⑫ 靜子의 편지 答伸
 - 다시 공부하겠다는 靜子에게 돈 100원과 격려의 답신
- ⑬ 東京으로 떠남
 - 큰집 형님의 “내님봄 續絃이야기에 “겨우무덤에서 빠져 나가는데요……따뜻한 봄이나 만나서……거드렁거릴 때가 되거든요”라고 웃어버림

이런 事件 構造가 順列法에 의해 進行한다. 作中現實에 나타난 植民地 狀況은 客觀的 觀察로 서술되어 있을 뿐으로 나와는 밀착되지 못한 것이다.

로망보다는 피카레스크적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어, 무라이가 「小説의 形態」에서 말한 로망(romance) 노블(novel) 告白(confession) 解剖(anatomy)에서 아나토미가 點綴된 노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作中現實에 또 다른 現實이 있는 二重構造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作品의 構造가 긴밀하고 統一性있게 構造의 完結美를 보이지 못하고, 散漫하게 平面的으로 짜여져 있다. 더구나 主人公 나의 性格이 투철하지 못하고 視覺의 平面性과 女人과 술로 도피하려는 것은 「萬歲前」을 觀察者의 액자소설로 그치게 한 주된 要因이 되고 있다.

암담하고 비참한 植民地下的 現實이 단지 背景의 역할 이상을 못하고 있는 것도 構造의 미완을 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萬歲前」의 구조는 「臨終」이나 「一代의 遺業」, 「三代」와 같은 作品에 이르러 리얼리즘의 技法이 成熟된 藝術的 構造로 나타난다. 그것은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移動叙述法이 다르면서도 事件의 構造를 空間的으로 집약시키는 小説의 空間性的 藝術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萬歲前」은 劇的方法(dramatic method)이 缺如된 要約的 方法(Summary method)에 의한 피카레스크적인 構造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萬歲前」의 文體

다른 小説이 그러하듯이 「萬歲前」은 산만하고 긴박감이 缺如된 表現으로 一貫되어 있다. 그것은 劇的 方法에 의한 場面の 描寫가 아닌, 要約的 方法에 의한 叙述이 그 表現의 大部分이기 때문에 주는 文體印象이다.

초기 작품인 「萬歲前」에서도 44.6字의 長文型임과 單文과 複文을 32:68로 쓰는 複文型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靜子の 전송을 받고 東京을 떠난 車안을 그린 다음 場面은 그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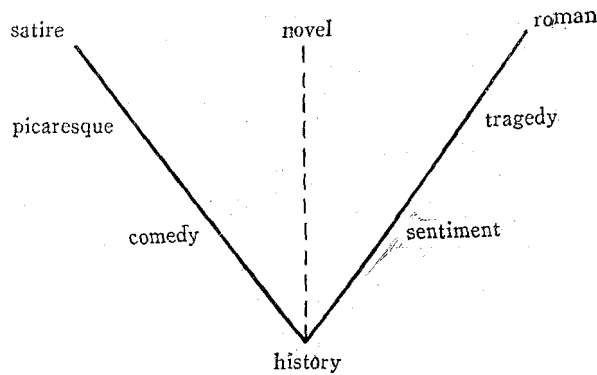
반찬 찬함과 같이 각타구니를 여기저기 합부로 벌여 놓고 푹푹 끼어 앉았는 틈에서 겨우 잠이락시고 불었다 깨니까, 아직 동이 트려면 한두 시간이나 있어야 할 모양. 창간은 야기에 선선하면서도 입김과 담배 연기에 흐렸다. 다시 눈을 감아 보았으나, 좀처럼 잠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의투자락을 걸친 어깨가 으스스하여, 일어나 앉으며 담배를 피어물고 나서 선반에 었힌 정자가 준 보자를 풀어 내렸다. 아까 받아 었을 때에 잠깐 보니까 과자 상자 위에 슬병 같은 것이 두두룩이 었혀 있는 것 같아서 긴하게 생각이 든 것이다. 네 귀를 살짝 접어서 썬 보자의 귀를 들치고 보니까 과연 감에 넣은 위스키병이 었혀 있다. 어한으로 한 잔 할 작정으로 병을 숙 빼려니까 가름한 연보라빛 양봉투가 끌리어 나왔다.

(별안간에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

그래서 나중에 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나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그래도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는 포켓에 집어넣고 술부터 따라 환승에 컸다.

어느 곳을 읽어 보거나, 이같이 건조하고 산만한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平面的이기는 해도 사실적인 表現을 한 것이나, 自由聯想法에 의한 內的 獨自에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回想이나 사색에 의한 獨自體, 거친 듯하면서 批判的인 對話, 對상을 批判하는 아나토미적인 叙述 등은 廉想涉의 表現의 特異性을 말해준다.

이런 表現樣式으로 보면 로버트 솔레스의 「文學에서의 構造主義」에서 말한(R.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1974, p. 136) 歷史(history)에서 로망(romance)과 諷刺(satire)로 指向하는 세계에서 코메디(comedy), 피카레스크(picaresque), 諷刺의 方向으로 발전하는 범주에 「萬歲前」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萬歲前」이 植民地狀況의 現實과 한 家族의 現實(history)을 感傷的, 悲劇的인 로망으로 形象化하지 못하고, 그런 現實을 觀察者의 立場에서 피카레스크적으로 表現하여 때로는 喜劇的 印象을 가지게 形象化 한 것을 말한다.

(3) 傍觀的 知性

「萬歲前」은 廉想涉이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作品活動을 시작하여 「二心」(1928)을 지나 「三代」에 이어서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作品이다. 그것은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個人意識이 「萬歲前」에서 社會意識의 각성으로 나타나 「二心」에서 植民地地下의 狀況의 처참함을 부각시키고 「三代」, 「無花果」, 「白鳩」에서 植民地狀況에서 살아가는 三代의 의식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合併 후 日帝의 악랄한 植民地 통치를 상징하는 세계의 건물 곧 총독부, 刑務所, 遊廓에서 벌어지는 비통한 現實, 刑務所에서 나온 이창호는 아내를 유곽에 팔아넘기고, 아내는 日本 유곽에서 죽는 등 植民地 狀況에서 虐待받고 타락하기 쉬운 조선

인의 現實을 독자에게 보여주면서 地獄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무리 두려워도 그 地獄을 直視하는 수밖에 없다고, 역사의식으로 現實을 투시하고 그 克服의 方向을 제시한 「二心」은 「萬歲前」에서 자각한 社會意識의 擴大인 것이다.

李甫永은 「殖民地 條件에의 挑戰」에서 「二心」을 論評하면서 廉想涉의 作品系列을 첫째 日帝가 강요하는 殖民地 條件에 대한 挑戰을 시도한 〈萬歲前〉系列, 둘째 〈除夜〉, 〈新婚記〉 등 20年代의 個性이 강한 新女性의 性格을 취급한 작품, 세째는 〈電話〉, 〈金半指〉부터 시작되어 量的으로 가장 많은 市井風俗小說을 들고 있다. 또한 丘昌煥은 「廉想涉의 萬歲前小考」에서 韓國小說의 主潮를 밝히고, 「萬歲前」이 創作되어진 社會와 不安意識, 구더기가 꿈은 무덤, 逃避主義인 內容世界와 視點, 構造, 文體 등의 技法을 分析하여 「萬歲前」을 本質의인 면과 外的인 면에서 批評하고 있다.

그러나, 「萬歲前」은 殖民地下的 처참한 現實을 大學生인 인텔리의 눈에 비친 風俗性을 보여주면서 歷史意識이 자각되는데, 「萬歲前」의 空間的 意味를 찾아 볼 수가 있다. 「萬歲前」의 意味를 몇 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먼저 現實을 즐기려는 生活意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學期末考査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電報를 받고 나서의 行動에서 비롯된다. 애정은 없다고 해도 아내의 위독을 알고 나서 곧바로 歸國하는 것이 아니라 단골술집에 들러 靜子와 희롱하고, 미리 준비한 목도리를 주는 것이나, 神戶에서 내려 아는 카페집에 들린 것, 乙羅를 만나는 일, 釜山에 내려 술집 찾아 가는 것 등 모두가 生活을 享樂하려는 데서 나온 행동이다. 더구나, 가는 곳마다 술과 女人을 가까이 한다. 그것이 식민지의 知識人으로 처참한 時代를 감지하고 앓는 고민을 해소하거나, 아내의 위독이 킁킁히 여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적극적인 動機도 없이, 평소의 習慣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個人的 生活의 快樂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인텔리는 個人을 더 중요시하고 모든 것의 優位에 個人的인 것을 둔다. 형님과 대화에서 “인생의 이상이란 것을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마는 구태여 말하자면 자기를 위하여 산다 할까요. 하지만, 결코 천박한 이기주의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主人公〈나〉는 個人的 욕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生活에서는 女人과 술이다. 靜子の 선물에 情을 느끼기 전에 보자기의 위스키부터 마시는 것으로도 그것이 證明된다.

둘째는 傍觀者로서의 嘲笑가 짙게 나타나 있다. 〈나〉의 視點의 設定부터가 觀察者의 입장에 선다. 作中現實과 視點人物(V.P character)과는 同一體가 될 수 없다. 거기에는 客觀的인 거리에서 作中現實을 觀察하고 再現하여 社會相을 보여주는 小說의 風俗的 空間性만이 나타날 뿐이다. 나가 겪는 現實과 〈나〉가 觀察하는 또 하나의 現實은 거리를 둔 平行的인 것이다.

연락선의 목욕탕에서 일인 상인이 조선의 노동자를 쿠리로 판다는 얘기가, 釜山の 女給의 모습, 서울가는 차중에서 빈궁과 감시의 曠境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는 것 등 모두가

觀察者의 차가운 視野에 비치는데 불과하다. 그러기에 「萬歲前」의 주제가 暗示되어 있는 車中에서의 독백에서도 <나>와 유리된 他人에 대한 批判에서 볼 수 있는 嘲笑가 서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들은 배추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리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받은 듯한 친한 웃음이다 ‘헤헤’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뒤져 버려라!) 차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하는 가혹한 백성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두 구더기, 나두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낼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날달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가 꺼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뉘저라 움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탕이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놀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자리로 와서 드러누웠다. 어느덧 난로 옆으로 등 너머에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깝가끔 꺼쳐 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름내, 분내를 코로 은은히 맡아 가며 눈을 감고 누웠었다.

(이것도 구더기 썩는 냄새이기는 일반이다!)

차참한 植民地의 現實에 대한 <나> 아닌 조선민족에 대한 客觀的인 批判이면서 個人으로서의 嘲笑가 서려 있다. ‘이게 산다는 것인가! 모두 뒤져 버리자’라고 절규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絶叫가 아니다. ‘모두 뒤져 버리자’가 아니고, ‘모두 뒤져 버려라’라고 獨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런 침통한 절규를 하면서 옆자리의 기생의 머리의 기름내를 은은히 맡아가며 잠이 드는 것은 現實을 透視하려는 社會意識이 體質化되지 못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우트사이더는 對象보다 內的 世界에 蟄居해 들어가며 끝내 孤獨의 深淵으로 빠진다. 그러나, <나>는 이런 自省도 별로 없이 비참한 현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뿐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밖에 없는 要因이나 그러한 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삶을 認知하고 그 指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었던 現實을 風俗的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視界의 限界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日帝에의 抵抗을 볼 수 있다.

植民地의 留學生이 감시를 받는 것은 知性人이 <나>와 民族을 인지하고 그 狀況을 克服하려는 來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民族意識을 질게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감시와 수색에 자연발생적으로 抵抗意識이 나타나게 된다.

下關에서 乘船할 때 검문을 받아, 가방에 있는 서류 봉치를 압수당하고, 下船할 때 감시를 받고, 김천이나 서울에서 尾行당하는 등 식민지하에서 지성인이 당하는 압박에 험난조로 말하는데 비로소 社會意識을 자각한 저항의식을 볼 수 있다. 觀察者의 視界에 비친 식민지의 비참한 現實은 生活意識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三代」에서 김병화 등을 등장시켜 日帝에 저항하는 것이나 釜山, 金泉이 왜놈의 차지가 된 것을 비판하고 일경이나 형사에게 내뱉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식의 발로다. 優越感이 個人과 個人의 關係를 벗어나서 집단적 背景이 있을 때는 순전한 적개심으로 변한다는 것을 省察하며 日帝의 악랄한 학정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主題로 上乘하게 필연적이고 투철한 의식으로 一貫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狀況에 직면해서야 抵抗意識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라르(René Girard)가 그의 「허위, 욕망과 소설」에서 主體와 對象 欲望의 갈등구조를 말한 대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欲望을 달성하기 위한 갈등이 없이, 觀察者로서 風俗性을 보여 주어, 있었던 社會를 再現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現實을 즐기려는 것이 欲望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넷째는 因襲을 批判하고 있다.

「萬歲前」의 현실에서 잔재하고 있는 因襲에 대한 批判이 신랄하게 나타난다.

金泉 형의 새댁을 처음 대하는 대목을 보면 <나>의 비판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인사가 끝난 뒤에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눈치로 병병이 있다가

“진넌방에서도 나와 보라지!”

하며 형수를 쳐다보다. 형수는 아수말 아니 하고 섰더니

“애! 너 가서 진넌방 어머니 오라구 해라”

하며 말을 시키었다. 나는 어리둥절하며,

“진넌방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며 형수를 쳐다 보았으나 머리에는 즉각적으로 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형수는 애를 써서 헛웃음을 입가에 띠며 잠자코 말았다.

“네게는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후환도 있고 해서 자연 입매껏 알리지를 못하였다만 작은 형수가 하나 생겼다”

하며 형님께 웃는다. 단 형제가 사는 집안에 작은 형수라는 말도 우습지만, 나는 대개 짐작하면서도

“작은 형수라니오?”

하고 되물으니까 웃목에 섰던 형수가,

“그 동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풀없는 웃음을 일부러 보인다.

또한 ① 아내의 병의 치유를 둘러싼 다툼이나 「三代」에서 조의관의 병의 치유를 둘러싼 다툼, ② 祭禮와 묘지에 대한 비현실성, ③ 大家族制度上에서 과생되는 재산 분배의 非合理性, ④ 金泉 형님이 새댁을 얻고 조의관이 수원집을 얻는 蓄妾 등에 대한 批判이 나타난다. 이런 의식은 조선의 현실과 서민의 생활을 비판하는 것으로 擴大되기도 한다.

「萬歲前」의 空間的 의미는 이같이 現實을 즐기려는 生活意識, 觀察者로서의 嘲笑, 日帝에의 抵抗意識, 因聲에 대한 批判 등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意味가 한 頂點으로 集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分散되어 응고되지 못한데 「萬歲前」이 風俗性을 넘어 指向性을 浮刻시키지 못한 意志의 缺如가 있다. 그것은 主題意識의 결여로 素材主義로 정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V. 萬歲前의 繼時的 意味

(1) 廉想涉小說의 變形

廉想涉은 日常性을 추구하여 小說의 風俗的 空間性을 리얼리즘의 技法으로 形象化하는 作家다. 그는 庶民의 日常의 生活속에서 서린 個人的인 生活意識을 平面的으로 作品化하고 있다.

그러나, 「萬歲前」에서 그것이 社會意識의 각성으로 擴大되고 「三代」에서 그 現場을 보여 준다. 그것은 「三代」와 「萬歲前」의 人物과 그 相互關係의 樣相을 보면 분명해진다.

상훈과 경애와 德基 : 아버지 첩인 경애는 德基와 동창생
 金泉 형님과 금순이와 나 : 어릴때 '경만에게 시집가라'고 말하던 나의 어릴 때의 친구
 병화와 경애와 덕기 : 아버지 첩이면서 병화의 애인관계
 병화와 올라와 나 : 나의 형인 병화와 올라와 애인관계
 조부의 죽음 : 漢醫와 洋醫의 대결에서 前近代相
 아내의 죽음 : 낡은 것의 갈등

그래서 「三代」는 「萬歲前」에서 자각된 社會意識이 발현되는 現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三代」와 「無花果」「白鳩」의 「三代」三部作에서 식민지 상황을 살아가는 三代의 階層의 의식이 生活에 침투된 現場性을 면밀히 밝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小說內的 繼時性

또한 「萬歲前」을 反春園論으로 美意識을 추구한 金東仁의 小說과의 相關性을 照明하는 것도 그 계서적 의미를 分明히 하는 作業이 된다 다음과 같은 堂상의 조명도 그런 作業의 일단이 될 것이다.⁽³⁾

金東仁의 小說
 美意識의 집요한 追求
 現實과 괴리된 想像의 人間像
 單一構成에 集約的 效果를 노리는 短篇

「萬歲前」을 위시한 廉想涉小說
 日常의 生活意識의 追求
 실제적이고 平面的 人間像
 平面的 構成에 의한 日常生活相을 보이는 長篇

(3) cf. 崔基洪, 東仁의 美意識과 想涉의 歷史意識.

劇의 方法의 제시와 要約의 方法의 균형
明快하고 簡潔한 文體
個人意識에 치중
對象的 即我的 自我的 體言型

要約의 方法이 우선하고 劇의 方法을 混用
難澁하고 單연체의 文體
다소 社會意識을 나타냄
狀態的 即物的 社會的 用言型

이것은 편의적인 對照이기는 하지만, 「萬歲前」을 비롯한 廉想涉小說은 春園의 民族 指向的인 社會意識을 日常的인 庶民生活로 限定시킨 風俗性으로 변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愛情의 美意識을 추구한 羅稻香小說, 生活의 美意識을 定立하려는 玄鎮健小說과의 相關性에서 당대의 의미를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萬歲前」은 社會意識이 갖든 觀察者의 視野에 照明된 단세건의 조선사회를 風俗的으로 反映하고, 그것이 「二心」, 「三代」와 같은 作品에 擴充되어 있다는데, 그 계시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V. 結

小説은 다양한 樣相으로 변모된다. 그러나, 그것은 風俗性的인 反映과 歷史意識의 指向性으로 壓縮된다. 앞의 것은 小説 正체와 空間性이요 뒤의 것은 변모 승화되는 時間性을 의미한다.

「萬歲前」은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비롯된 廉想涉의 새로운 변모를 가져 오는 小説이라는 데 관심이 集中된다. 이제까지 論述한 것을 몇 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① 廉想涉은 文學意識을 분명히 밝히고 創作을 하는 作家로, 그의 「萬歲前」의 本格的인 研究가 없는 것은 文學研究의 虛實을 말하는 것이다.

② 小説의 空間性은 風俗性과 社會意識은 指向性으로 나타난다.

③ 「萬歲前」은 아내의 위독으로 서울에 와 東京으로 돌아가기까지를 順列法에 의한 單純構成으로 주로 要約의 方法에 劇의 方法을 併用해서 殖民地狀況에서의 風俗的 現實을 反映한다.

④ 人物은 觀察者에 머무는 平面的인 人物로서 술과 女人에 의한 生活의 欲望을 궁핍한 現實에 照明하여 傍觀的인 위치에 선다. 난삽하고 長文이면서 複文을 구사하는 文體는 긴밀성과 박진감이 결여되어 산만한 印象을 준다.

⑤ 「萬歲前」의 作品世界는 生活을 즐기려는 生活意識, 傍觀者의 嘲笑, 日帝에의 抵抗, 因襲의 批判으로 縮約된다.

⑥ 「萬歲前」은 社會意識의 自覺이 나타나 廉想涉의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어 「二心」, 「三代」에서 그것이 확충된다. 또한, 그것은 金東仁의 美意識의 추구하고 羅稻香의 愛情의 美意識, 玄鎮健의 生活의 美意識을 추구하고 대응되는 小説의 空間性의 風俗的 現實의 反映이며, 社會意識의 투영이라는 데 繼時的인 意味가 있다.

시종일관하여 庶民生活의 哀歡을 리얼리즘의 技法으로 形象化한 廉想涉은 「三代」의 三部作과 「驟雨」의 三部作, 「두 破産」, 「臨終」, 「一代의 遺業」 등 단편으로 空間性에 편향된 作

품을 창조한다. 그 作品의 근거를 이루는 風俗性은 있었던 現實을 反映하는 小說의 空間性을 확대하며, 희미한 社會意識은 있어야 하는 文學의 指向性으로 深化되어 韓國小說의 새로운 指標를 形成해간다.

參 考 文 獻

- 白 鐵：(1972) 新文思想潮史 新丘文化社
 趙演鉉：(1968)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申東旭：(1972)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金鍾均：(1974) 廉想涉研究 高大出版部
 金柱演：(1974) 文學批評論 悅話堂
 金治洙：(1976) 韓國小說의 空間 悅話堂
 蔡 燾：(1976) 1920年代의 韓國作家研究 一志社
 丘昌煥：(1963) 「廉想涉의 萬歲前小考」 韓國語文學 創刊號
 金宇鍾：(1968)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金允植·김현：(1973) 韓國文學史 民音社
 René Girard (tr. y. Prececro): (1968) *Deceit, Desire and the Novel*, London
 R. Scholes: (1973)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Y.
 J. Rockwell: (1974) *Fact in Fiction* London

Novel Aesthetics of "Mansaejeon"

Koo, In-Hwan

(Dep.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bstract

Novel reflects manners and heads for historical consciousness. Manners means space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does time.

'Mansaejeon' is a literary work written by Yeum Sang-seub, which assumes a different aspect from 'A Tree Frog of Specimen Room'.

Literary meanings of 'Mansaejeon' are summerized as followed.

1. 'Mansaejeon' wrote simple construction. The story arranges that writer came to Seoul because of critical condition of his wife and returned to Tokyo.

It reflected the situation of colonization with summary method.

2. With flat character of observer, it illuminated a life with wine and woman and the poor reality of the colony.

3. It's style impressed diffuseness because that it is lack of closeness and force in difficult, long and complex sentence.

4. The realms of the novel are life consciousness, ridicule of observer, criticism of convention and resistance to Japanese colony.

5. Self-consciousness of social reality expanded to "Two Minds" and "Three Generations".

As confronted with pursuit of aesthetic by Kim Dong-In, aesthetic of love by La Do-Hyang aesthetic of life by Hyeun Jin-Keon, it has apocalyptic meaning of reflection of customs and social-consciousness in terms of space.

Ryeum Sang-seup gives a figure to sadness and joy of commoner's life with realistic technique.